

6월14일(월)/사도행전27:1~8

**제목: 의리의 남자 아리스다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다. 그는 백부장과 율리오와 죄수 몇 사람과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이사라를 출발하여 시돈과 무라성을 경유하며 마침내 그레테 섬의 미항에 도착했다(1~8절). 여기서 바울의 동행자 중에 아리스다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21)고 말한 직후, 그는 바울의 일행 중 하나로 등장한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를 붙잡았다(19:29). 소요가 그치자 그는 바울과 함께 유럽에서 아시아로 갔고(20:4). 로마에 이르기까지 줄곧 바울과 동행했다. 그리고 골로새서(골4:10)나 빌레몬서(몬1:24)에 의하면 바울의 투옥 기간 중에도 그는 줄곧 로마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바울이 폭풍과 소요와 온갖 삶의 역경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삶과 목적을 공감하는 절친한 한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리스다고는 의리의 사람이었다. 그는 바울이 역경과 고독 속에 있을 때 더 함께 했다. 그는 바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한결같았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얼마나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데 능숙한가?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이 ‘의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월15일(화)/사도행전27:9~26

**제목: 하나님의 사람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바울은 10월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미항에서 계속 월동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백부장은 피닉스까지 연안을 따라 항해하자는 선장의 말을 받아들였다(9~12절). 이 때 무서운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 닥쳤다(14절).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구를 바다에 던져버렸다(18~19절). 해와 별이 가리워진 채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고 절망은 극에 달했다.(20절). 이 때 바울이 전체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는 전날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메시지를 전했다(21~25절). 바울이 전체를 지휘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안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졌다. 죄인이 선장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용기가 남아 있는 사람이 그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주저 앉아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다. 우리는 소심한 분위기가 팽배할 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그 분위기에 편승되어 버리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이고 소심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항상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6월16일(수)/사도행전27:27~44 (1)

**제목: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안정시킵니다.**

배가 태풍으로 계속 표류하던 중 밤중에 육지가 멀지 않은 것을 직감한 선원들이 닻을 내리고 거룻배를 타고 몰래 탈출하려하자 바울의 경고를 들은 군인들이 줄을 끊어 선원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27~32절).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을 안정시켜나갔다. 그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게 하였고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고취시켰다(33~34절). 그리고 그는 이 배를 정식 정박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육지에 비상착륙을 시도하게 하였고 육지에 다다르자 헤엄칠 줄 아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헤엄쳐가게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파편들을 이용해서 육지에 도달하게 하였다(39~44절).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절대위기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건짐을 받았다. 바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마침내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용감하지 않고 남도 용감하게끔 도와준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안정되어있지 않고 남도 안정되게 도와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려면 얼마나 남에게 안정을 주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6월17일(목)/사도행전27:27~44 (2)

**제목: 인생이 순탄치 만은 않습니다.**

바울의 로마행 기사는 온갖 세력들이 힘을 합하여 그의 로마 도착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17절)라는 말은 배가 산산 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은 상황에서 배를 묶은 밧줄로 둘러 감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 배는 폭풍에 가라앉을 정도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산산 조각 나기 직전에 있었다. 이 기사는 마치 자연의 세력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바울의 로마행을 막기 위해서 그 배로 몰려드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의 결말을 모른다면 ‘바울은 로마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폭풍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만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고아가 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하나님이 길을 정해서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시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숏한 폭풍을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6월18일(금)/사도행전28:1~6

### 제목: 작은 일도 잘하는 바울

바울의 배는 파선하여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었다(1절). 섬 원주민들은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 불을 피웠고 바울도 함께 그 일을 도왔다(2~3절). 그런데 그가 불에 나뭇가지를 갖다 올려놓을 때 갑자기 나타난 뱀이 그의 손을 물었고, 죽을 줄 알았던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그를 신으로 오해하는 해프닝도 있었다(3~6절). 바울이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피우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는 풍랑을 해치고 276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 그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선장으로써 지도력을 인정받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나뭇가지 굽는 일은 남을 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 나뭇가지를 직접 주워서 불을 피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위대한 일 뿐 아니라 극히 작은 일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큰 비전을 품은 사람이지만 매우 실질적인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남들이 잘 관찰할 수 있는 큰 일에만 몰두하지 않은가? 남들의 시선이 거의 없는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 특히 교회 중직자 일수록 작은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